

'Bio Job Fair 2003' 을 마치고

한국바이오벤처협회 손인숙

한국바이오벤처협회는 2003년 10월 22일~24일 3일간 Bio KOREA 2003를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개최하였다. 관련행사로 전문취업 박람회인 "Bio Job Fair 2003"를 개최하였다.

특히 Bio Job Fair2003은 바이오 전문인력의 구인구직의 장을 마련하고자 산업자원부 후원으로 한국바이오벤처협회와 지역 BVC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세부행사로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면접요령강좌', '바이오산업현직종사자의 이야기', '면접사진촬영' 등이 준비되었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사상최악의 취업불황이라는 시기적 상황에 이번 취업박람회는 무엇보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과 구직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사전준비로 행사 2개월전부터 홈페이지 (<http://www.biojob.or.kr>)를 통해 구인/구직 신청을 받았다. 온라인을 통한 사전 신청후 오프라인을 통해 만나게 함으로서 구인구직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행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포탈 사이트인 "잡코리아"와의 업무제휴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대학을 통한 홍보로는 대학취업보도과와 학과사무실을 직접 접촉하여 행사를 알렸다.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구인업체의 섭외였다. 경제침체와 업계의 수시채용 관행때문에 행사시기와 맞추어 채용계획이 있는 구인업체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

(주)셀트리온이 공장준공을 앞두고 생산을 담당할 전문인력 70여명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

어 이를 정점으로 구인업체의 섭외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 외에도 (주)셀바이오택, (주)서린 바이오사이언스등 협회 회원사와 코스닥상장사들이 참가하였다. 행사당일, 산자부 장관, 한국생물산업협회 조완규 회장, 한국바이오벤처협회 김완주 회장의 테이프커팅과 함께 BIO KOREA 2003 대단원의 막이 오름과 동시에 BIO JOB FAIR 2003도 개최의 막이 올랐다.

코엑스 대서양홀에서의 현장 면접과 구인업체 포스터 게시장, 면접사진촬영장이 운영되고, 맞은편 회의실에서는 '바이오산업 현직종사자의 이야기' '훌륭한 면접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강좌' 등 오전타임 강좌와 '기업설명회'를 오후타임으로 지속적인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만남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BIO KOREA는 Analab2003(국제 분석 실험기기전)이 같이 개최되어 실험기기관련 참가부스가 갖추어 졌으며 이를 보기 위한 참관자들도 많았다. 구직자중에는 일찍부터 나와서 자신이 사전에 확인해 놓은 구인업체 면접관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가 하면 자신의 일정상 참가가 불가능한 구직자는 부모님이 대신 정보를 입수하고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구인업체에서는 면접시 구직자와의 만남에 집중하고 뛰어난 인재를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대부분의 바이오업체가 고학력의 석·박사급 인재를 수요로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눈높이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발·연구 부분외에도 일반사무직 및 경영관리 부서의 인력도 함께 채용면접이 진행되어 바이오관련없는 전공자들의 참가에도 기회가 주어졌다.